

한중 ‘赤壁’ 경관 이미지와 예술작품 비교 고찰*

－ 한국 내 ‘적벽’ 답사를 중심으로

김 재 현
(상명대학교)

1. 머리말

중세의 동아시아는 한자·한문 문화를 보편문화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출한 문학작품이 창작되면 같은 문화권 안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문학작품의 배경이나 소재가 되는 장소가 실제할 경우, 그곳은 명승지가 되어 문화권 안의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희망 답사지가 되었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도 같은 지명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문화를 형성하는 여러 문화지역 가운데 호남성과 호북성을 중심으로 하는 荊楚 문화 지역의 사례를 들어 위와 같은 현상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형초 문화 지역은 자연 풍광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풍부한 인문지리와 심상지리를 지닌 곳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곳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 이 논문은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62-A00032)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이며, 이와 관련한 문학작품 및 그림 등의 유명한 예술작품들이 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적벽’이 그러했다.

‘적벽’은 한국예술에 두 가지 의미로 수용되었다. 첫째는 역사서 『三國志』와 소설 『三國演義』에 서술되어 있는 적벽대전을 소재로 한 작품군이 있다. 이들 작품군은 주로 판소리 적벽가와 소설 등의 한글로 된 문학작품에 많다. 둘째, 蘇東坡가 적벽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의 풍류를 흠모한 작품군으로 문학작품과 함께 회화작품이 주를 이룬다. 소식이 지은 적벽 관련 작품은 모두 「前赤壁賦」, 「後赤壁賦」, 「赤壁懷古」 세 작품이다. 어느 의미로든 한국과 중국에서 ‘적벽’문학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적벽 경관과 예술작품은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필자는 예술작품과 경관이미지를 연구하기 위해 2009년 1월7일에서 8일까지 이틀 동안 한국 내 ‘적벽’경관의 현장을 답사하였다. 우리나라에 ‘적벽’이라는 지명을 지닌 곳은 全羅北道 和順郡의 ‘赤壁’, 全羅北道 扶安郡의 ‘赤壁江’, 忠淸南道 錦山郡의 ‘赤壁·赤壁江’ 세 곳이다. 필자는 이중 화순군과 부안군 두 곳을 답사하여 그곳의 경관을 사진으로 담고 亭子의 扁額을 조사하였다. 본고에서는 韓中 赤壁圖, 답사에서 얻은 경관 사진과 편액의 한시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적벽 경관과 예술의 斷面을 소개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한중 적벽 예술 이미지

먼저 한국과 중국의 赤壁圖를 통하여 옛 사람들이 보고 생각한 적벽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朴瑛子和 崔景현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문인 및 화가들이 소식의 적벽부를 소재로 한 적벽도는 중국이 28작품, 한국이 11작품이다. 작품의 목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朴瑛子, 「적벽도연구」, 『實學思想研究』, 역사실학회, 第5-6輯, 1995. 1, 崔卿賢, 「명대 오파의 적벽부도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研究』, 한국미술사학회, 第199-200

〈현존하는 중국의 적벽도 목록〉

작 품 명	작가명	제 작 연 대	기 타
1 後赤壁賦圖	喬仲常	北宋 1123년	卷 紙墨 29.5×560.3cm J.M.Gawford Collection 메트로폴리탄미술관
2 前赤壁賦圖	楊士賢	南宋1120~1160	卷 絹墨著 30.9×128.8cm 보스톤미술관
3 赤壁圖	武元直	1196	卷 紙本水墨 50.8×136.4cm 고궁박물관
4 赤壁後遊圖	馬和之	1140~1190	卷 25.9×143cm
5 赤壁圖	李嵩	1190~1230	冊 絹本水墨淡彩 24.8×26cm 넬슨갤러리
6 前後赤壁賦圖	趙孟頫	1298	冊
7 赤壁圖	吳鎮	1342	軸
8 赤壁後遊圖	張靈	1510	卷 紙本墨畫淡彩 27.3×161.2cm
9 赤壁前遊圖	張靈	1531	卷
10 赤壁舟遊圖	작자미상	明時代	卷 絹本著色 30.7×162.7cm 상악암1919년 수집 중국문인화도록
11 書前赤壁賦並圖	陳道復	1543	卷
12 後赤壁賦圖	文徵明	1545	卷
13 赤壁圖	文徵明	1548	冊
14 赤壁賦圖	文徵明	1551	卷
15 赤壁圖	文徵明	1552	並書 赤壁賦卷
16 赤壁賦圖	文徵明	1556	卷(畫畫)
17 赤壁勝遊圖	文徵明		卷 프리아 갤러리
18 前赤壁舟遊圖	文徵明	1558	데트로이트 미술관
19 赤壁圖	文伯仁	1557	卷
20 赤壁圖	錢穀	1572	軸
21 赤壁遊圖	居節	1575	軸 紙本水墨淡彩 90×40.7cm 장대천Collection
22 後赤壁賦圖	蔣乾	1603	卷
23 赤壁賦圖	邵彌	1697	卷
24 赤壁圖	王鐸	1646	軸
25 赤壁圖	查士樸		동양미술대관에 그림 있음
26 前後赤壁圖	王寅	19C	軸 絹本彩色 136×41cm
27 赤壁夜遊	楊柳青	清初	
28 後赤壁圖	傅抱石	1964	88.4×52.5cm 일본유학하며 그림 배움

〈현재 한국의 적벽도 목록〉

	작품명	작가명	작품규모(cm)	재료	제작년대	소장처
1	赤壁圖	(傳) 安堅	161.3×102.3	絹本淡彩	조선초기	국립중앙박물관
2	赤壁圖	沈師正	28.5×63.5	紙本淡彩	조선후기	동방화랑
3	後赤壁圖	鄭 散			조선후기	李用熙 소장 澗江壬戌粘증예
4	임진적벽	鄭 散	89.8×58.5	紙本淡彩	조선후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No.208)
5	赤壁圖	韓用幹	43.5×37.9	紙本淡彩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6	後赤壁賦圖	池震英	41.8×122.7	絹本設彩	조선후기	劉恒烈 소장
7	赤壁圖	金壽奎				
8	적벽야유	趙錫晉				간송박물관
9	赤壁圖	필자미상	161.2×101.8	絹本淡彩		국립중앙박물관
10	赤壁乏舟圖	작자미상	30.1×38.1		18C	李延美 소장
11	後赤壁圖	金殷鎭			1892~1979	

위의 작품 중 두 나라의 적벽도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으로 조선 초기 산수화를 대표하는 문인화가 安堅의 적벽도와 중국의 문인화가 武元直의 적벽도를 비교하여 한중의 적벽 예술이미지를 비교고찰해 보겠다. 우선 안건의 작품을 살펴보자.



그림1. 傳 安堅〈赤壁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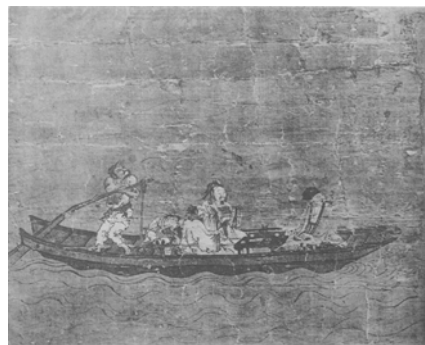


그림2. 傳 安堅〈赤壁賦〉

[그림1]은 조선 초기의 산수화로서 北宋의 蘇軾이 湖北省의 명승지인 적벽을 船遊하고 지은 赤壁을 소재로 15世紀 朝鮮의 安堅이 그린 것으로 전해 온다. 화면의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산들은 첩첩이 쌓여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이 험준해 보이면서도 무성한 나무들과 船遊 장면이 조화를 이루어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이 그림은 <夢遊桃源圖>에서 보여주었던 안견 특유의 필치가 잘 나타나 있다. 적벽은 강한 느낌을 주는 반면, 적벽을 감상하고 있는 인물들은 가는 붓으로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필치로 그려 필묵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안견의 높은 경지를 느끼게 한다.

이 그림은 안견이 마치 소식의 적벽 관련 작품 중 <前赤壁賦>와 <赤壁懷古>에서의 영감을 화폭에 담은 듯한 의경을 보여 주고 있다. 본고에서 소식의 작품을 절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前赤壁賦>

……손이 말하기를 "달은 밝고 별은 성긴데, 까막까치가 남쪽으로 난다.'는 것은 曹孟德의 시가 아닌가? 서쪽으로 夏口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武昌을 바라보니 山川이 서로 얽혀 뻑뻑이 푸른데, 예는 맹덕이 周郎에게 困辱을 받은 데가 아니던가? 바야흐로 荊州를 깨뜨리고 江陵으로 내려갈 제, 흐름을 따라 동으로 감에 배는 천 리에 이어지고 깃발은 하늘을 가렸어라. 술을 걸러 강물을 굽어보며 창을 비끼고 시를 읊으니 진실로 一世의 英雄이러니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나는 그대와 강가에서 고기 잡고 나무하며, 물고기와 새우를 짝하고 고라니와 사슴을 벗함여라. 한 잎의 좁은 배를 타고서 술을 들어 서로 권하며, 하루살이 삶을 天地에 부치니 아득한 넓은 바다의 한 알갱이 좁쌀알이로다. 우리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긴 江의 끝없음을 부럽게 여기노라. 나는 신선을 끼고 즐겁게 노닐며, 밝은 달을 안고서 길이 마치는 것은 갑자기 언지 못할 줄 알새, 끼치는 소리를 슬픈 바람에 부치노라."

客曰，月明星稀，烏鵲南飛，此非曹孟德之詩乎。西望夏口，東望武昌，山川相繆，鬱乎蒼蒼，此孟德之困於周郎者乎。方其破荊州下江陵，順流而東也，舳艫千里，旌旗蔽空，醞酒臨江，橫槊賦詩，固一世之雄也，而今安在哉。況吾與子，漁樵於江渚之上，侶魚蝦而友麋鹿，

駕一葉之扁舟，舉匏樽以相屬，寄蜉蝣於天地，渺滄海之一粟，哀吾生之須臾，羨長江之無窮。挾飛仙以遨遊，抱明月而長終，知不可乎驟得，託遺響於悲風。³⁾

〈赤壁懷古〉

大江東去， 큰 강물 동편으로 흐르는데，
浪淘盡千古風流人物. 물결과 함께 千古의 뛰어난 인물들도 가버렸는가!
故壘西邊， 옛 堡壘의 서편이
人道是三國周郎赤壁. 삼국시대 周瑜가 曹操의 대군을 쳐부순 赤壁이라네.

亂石崩雲， 어지러이 바위는 구름 위로 솟아있고
驚濤裂岸， 놀란 파도는 강언덕을 찢을 기세로
捲起千堆雪. 천 무더기 눈을 말아올리 듯 하네.
江山如畫， 江山은 그림만 같은데
一時多少豪傑! 옛날 한 때에는 얼마나 많은 豪傑들이 활약했던가!

遙想公瑾當年， 멀리 주유 활약했던 옛날 생각해보니，
小嬌初嫁了， 그에겐 미인 小嬌가 갓 시집 왔고
雄姿英發. 雄姿는 英氣를 발했었지.
羽扇綸巾， 새깃 부채들고 綸巾 쓰고
談笑間， 웃고 얘기하는 사이에
強虜灰飛烟滅. 強敵을 재되어 날리고 연기되어 사라지게 하였지.
故國神遊， 옛 고장 생각하며 노니는데，
多情應笑我，多情한 이들은 응당히
早生華髮. 벌써 내게 흰 머리 났다고 비웃겠지.
人間如夢， 인간 세상은 꿈 같은 것
一樽還酹江月. 한잔 술을 강물에 비친 달 위해 따르네.⁴⁾

기존의 학자들은 [그림1]에 대해 소식의 이러한 의경이 그림 속 인물에 잘

3) 황건 저, 최인옥 역, 『古文眞寶』, 을유문화사, 1984. 200쪽 참조.

4) 김학주, 『중국문학개론』, 신아사, 1993년, 220-221쪽.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이 최근까지 安堅의 작품으로 傳稱되어 왔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 즉, [그림2]의 인물부분이 안견의 다른 산수화보다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인물에 뛰어났던 화가가 그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⁵⁾ 이러한 의혹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식의 적벽 관련 글을 보고 조선의 문인화가들이 소식의 작품을 읽고 해석해 내서 자신만이 가지는 풍격으로 재구성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적벽도를 살펴본다.



그림3. 武元直 〈赤壁賦〉

[그림3]은 金代 武元直이 그린 것으로, 작품에 낙관이 남아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이 확실하다. 무원직은 字가 善夫이며, 호는 廣莫道人으로 대략 12세기 하반기에 활동하였다.

무원직의 적벽도는 명백하게 近·中·遠의 三段階 遠近法이 이용되었고 畫面 左右 下端에는 近景, 中央에는 主山을 두고 石上에 遠景을 遞減시키며 배치하고 있다. 우측 근경과 원경의 부분의 비는 크지 않고 더욱이 근경과 중경에 해당하는 주산에는 거의 대소 비례가 없다. 기본으로 삼은 것이 北方의 風物이고 北宋의 山水畫였다는 것은 확실하나 北宋의 산수화가 갖는 극적인 화면의 변화나 大觀性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다. 前後赤壁賦와 赤壁回顧史의 畫題를 찾아 그린 작품으로 描法 手法은 이미 정해진 양식

5) 大韓民國 藝術院, 『韓國美術事典』, 1985년, 482쪽 참조.

에 의해 그려진 예스러운 형식을 찾을 수 있다.⁶⁾ 이제 소식의 실제 문학작품과 비교해서 살펴보자.

壬戌 가을 7월 기망에 蘇子가 손과 배를 띄워 赤壁 아래 노닐 새, 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고 물결은 일지 않다. 술을 들어 손에게 권하며 明月의 시를 외고 窈窕의 章을 노래하더니, 이윽고 달이 동쪽 산 위에 솟아 올라 北斗星과 牽牛星 사이를 서성이더라. 흰 이슬은 강에 비끼고, 물빛은 하늘에 이었더라. 한 잎의 갈대 같은 배가 가는 대로 맡겨, 일만 이량의 아득한 물결을 헤치니, 넓고도 넓게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 그칠 데를 알 수 없고, 가뭇가뭇 나부껴 인간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서, 날개가 돋치어 神仙으로 돼 오르는 것 같더라.

이에 술을 마시고 흥취가 도도해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하니, 노래에 이르기를 "계수나무 노와 木蘭 상앗대로 속이 흰히 들이비치는 물을 쳐 흐르는 달빛을 거슬러 오르도다. 아득한 내 생각이여, 美人을 하늘 한 가에 바라보도다." 손 중에 통소를 부는 이 있어 노래를 따라 和答하니, 그 소리가 슬프고도 슬퍼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하는 듯, 餘音이 가늘게 실같이 이어져 그윽한 골짜기의 물에 잠긴 蛟龍을 춤추게 하고 외로운 배의 홀어미를 울릴레라.

壬戌之秋，七月既望，蘇子與客，泛舟遊於赤壁之下，清風徐來，水波不興。舉舟屬客，誦明月之詩，歌窈窕之章，少焉，月出於東山之上。徘徊於斗牛之間，白露橫江，水光接天。縱一葦之所如，凌萬頃之茫然，浩浩乎，如憑虛御風，而不知其所止，飄飄乎，如遺世獨立，羽化而登仙。於是，飲酒樂甚，舷而歌之，歌曰，桂棹兮蘭，擊空明兮流光。渺渺兮予懷，望美人兮天一方。客有吹洞簫者，倚歌而和之，其聲嗚嗚然。如怨如慕，如泣如訴，餘音，不絕如縷，舞幽壑之潛蛟，泣孤舟之蠶婦。⁷⁾

이 그림은 주로 적벽의 풍경과 분위기에 중점을 두고 그림을 표현해 낸 것으로 보인다. 즉, 화가는 소식의 작품 해석에 있어 비교적 사실적이고 외형

6) 朴瑛子, 앞의 논문, 336~337쪽 참조.

7) 『古文眞寶』後集 卷之八

적인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내고 화폭에 투사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한중의 문인화가들이 각 작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소식의 작품 해석의 시각에 따라 그려지는 적벽 이미지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情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상상으로 그린 景에 중점을 두느냐에 대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3. 한국의 '적벽' 경관 이미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는 '적벽'이라는 지명이 모두 세 곳에 있다. 바로 全羅北道 和順郡의 '赤壁', 全羅北道 扶安郡의 '赤壁江', 忠淸南道 錦山郡의 '赤壁·赤壁江'이다.

화순군의 적벽은 기암절벽과 굽이치는 강줄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勿染亭'·'望郷亭'·'望美亭'·'松石亭' 등의 亭子가 있어 扁額에는 수많은 한문학 작품이 기록되어 있다. 부안군의 적벽강은 내륙을 흐르는 강이 아니고 바닷가 바위 절벽이다.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금산군의 적벽·적벽강은 한국의 四大江 중의 하나인 錦江邊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위 절벽이 붉은 색을 띠고 있다 해서 그 바위 절벽을 '적벽'이라 하고 적벽 아래를 흐르는 금강을 '적벽강'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필자는 이 세 곳 가운데 화순군의 적벽과 부안군의 적벽 두 곳을 답사하였다. 이에 두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답사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적벽문학 현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화순군 적벽부터 살펴본다.

[사진1]은 산 중턱에서 바라본 적벽 전경이다. 험준한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면 어느 순간 시야가 열리면서 별천지가 전개된다. 높은 산 중턱에서 내려다 본 적벽은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절벽과 강줄기와 물색, 그리고 먼 산 산등성이의 곡선이 웅장한 가운데 부드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1] 和順赤壁 全景



[사진2] 望鄉亭



[사진3] 望鄉亭 眺望

[사진2]와 [사진3]은 화순적벽위에 있는 망향정의 사진이다. 이곳에서 내려다 보는 강의 물굽이에 자리 잡고 있어 시야가 트여 시원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멋을 지니고 있다. 이곳 적벽은 화순군과 광주광역시 상수원으로서 댐을 건설함에 따라 수몰된 지역이다. 이곳에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수몰된 옛 고향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절벽 위에 지은 정자가 망향정이다. 절벽 위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 망향정은 적벽의 경관을 한 눈에 둘러볼 수 있어서 가슴을 탁 트이게 만들어준다.



[사진4] 望美亭

[사진4]의 망미정은 망향정 아래 쪽 강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강 건너 적벽을 근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에 잠긴 적벽의 모습과 푸른 하늘색의 오묘한 조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조그만 정자는 조망이 좋은 산중턱 안온한 터에 자리잡고 있어 주변 경관과 무리없이 조화를 이루어 인간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동양의 자연 친화, 물아일체의 이념을表象해 주고 있다. 망미정은 적벽의 가까이에 있어 적벽이 더욱 높고 웅장해 보이는 데다 물에 잠긴 적벽까지 보태, 그 가운데 서 있는 정자와 사람의 모습이 億劫의 세월을 거쳐 온 자연 앞에서 왜소해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자연 앞에 인간들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웅건한 자연 앞에 다소곳한 자세로 앉은 조그만 정자 하나를 마련하고 대자연을 바라보며 많은 문학작품을 남겨 자신의 감회를 술회하였다.

[사진5]와 같이 이 정자에는 조선후기의 문인이면서 학자이고 大司諫이라는 관직을 지낸 農岩 金昌協(1651~1708) 등 많은 명사들의 편액이 걸려 있다. 농암 김창협이 쓴 詩 <遊望美亭>을 보자.



[사진5] 望美亭 扁額

連峰無數上青天
 下有滄浪一道川
 削出層巖有神鬼
 結爲空翠似雲烟
 松杉盡向潭中瀉
 日月疑從石上懸
 見說陰崖有巢鶴
 夜深應夢羽衣仙

무수히 연한봉 하늘에 오르는 듯
 그아래 滄浪있어 한길이 통했도다
 깎아논듯 층층바위 신기함이 있고
 푸른 공중에 매달린 雲烟과 같구려
 송과 잣은 모두 못 가운데 향하여 솔리고
 날과 달은 돌위에 달렸는가 의심하도다
 그늘 언덕에 학집이 있다 말하니
 밤이 깊으면 응당 羽衣 신선을 꿈꾸리라

적벽의 경관을 노래했다. 적벽을 중심으로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둘러져 있는 遠景, 깎아지른 듯한 층암절벽의 신기한 모습, 절벽과 하늘에 걸쳐 드리워진 雲煙, 강물에 잠긴 송삼나무의 모습, 산꼭대기에 매달린 해와 달의 정경이 선경처럼 묘사되어 있다. 적벽강 풍류를 노래한 소동파의 <後赤壁賦>⁸⁾를 연상한 것은 아닐까? 그 한 대목을 인용한다.

8) 『古文眞寶』後集 卷之八

밤은 이미 깊어 사방이 고요적막한데, 외로운 학 한 마리 강을 건너 東에서 오는데 필력은 나래를 수레바퀴 돌리는 듯 흰 옷에 검은 치마 차려입고 알연히 긴소리로 울면서 내 배를 스치듯 서쪽으로 날아가네. 잠시 후 객들은 모두 돌아가고 나 역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도사 한사람이 깃옷을 맵싸 있게 차려입고. 임고 아래로 지나면서 길게 상반신을 굽히는 禮로 말하기를 적벽에 뱃놀이는 즐거웠소이까? 글썽 누구시더라? 그는 고개를 떨군채 대답이 없더니 아~하! 반갑소이다! 이제 생각이 나는 구로. 어젯밤에 내 곁을 울며 날던 이가 바로 그대 아닙니까? 도사 돌아보며 웃거늘 나 역시 놀라움에 잠에 깨어 문을 열고 내다보니 어데로 갔는가 보이지 않더라.

四顧寂寥，適有孤鶴，橫江東來，翹如車輪，玄裳縞衣，戛然長鳴，掠予舟而西也。須臾客去，予亦就睡，夢一道士，羽衣飄飄，過臨皋之下。揖予而言曰，赤壁之遊樂乎。問其姓名，俛而不答。嗚呼噫嘻，我知之矣。疇昔之夜，飛鳴而過我者，非子也耶。道士顧笑，予亦驚悟，開戶視之，不見其處。⁹⁾

여기서 적벽 관련 편역 한시 몇 작품을 더 소개한다.

〈赤壁題詠〉

丹崖如削水如油	붉은 언덕 깎아섰고 물은 기름같은데
勝遊曾經壬戌秋	勝遊할제 일찌기 壬戌가을 지냈도다
蘇子風流猶未沫	蘇子の 풍류는 오히려 없어지지 않아서
至今依舊挾仙樓 ¹⁰⁾	지금도 옛처럼 仙樓를 끼었어라

이 작품은 조선후기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白江 李敬輿(1585~1657)의 絶句이다. 勿染亭에서 바라본 적벽의 풍광과 흥취를 노래했다. 각아지른 듯한 層巖絶壁과 기름을 부어놓은 듯 윤기가 나는 잔잔한 강물의 정경을 보면서 壬戌之秋에 船遊를 즐긴 소동파의 풍류를 연상하였다.

9) 『古文眞寶』後集 卷之八

10) 勿染亭 扁額

〈赤壁題詠〉

十年擾擾又南南	十年을 우유하고 또 南遊하였으니
盃酒江山病後知	酒盃와 江山을 병든 뒤에 알았노라
秋雨灘聲驚一夢	가을비 여울소리에 한꿈을 놀래끼니
仙靈不語鶴無期 ¹¹⁾	仙靈은 말이 없고 鶴도 기약이 없구려

이 작품은 조선후기 仁祖 時 문인.학자이고 吏曹判書를 지낸 仙源 金尙容 > (1561~1637)이 늦게야 적벽에 와 본 감회를 술회하고 있다. 역시 소동파의 풍류를 회고하면서 감회에 젖어들었다.

〈遊赤壁仙臺〉

十二奇峯又赤壁	열둘 奇峰에 또 적벽이 있으니
一區形勝擅南州	一區의 形勝으로 남주에 떨쳤도다
淹留不覺歸期晚	잠간 머물러 돌아갈 기약을 몰랐으니
無限風林正九秋 ¹²⁾	한없는 풍림은 정히 九月 가을이라네

이 작품은 조선조 문인.학자이며 대사헌을 지낸 寒岡 鄭述(1543~1620)가 지은 絶句이다. 적벽을 둘러싸고 있는 12봉의 절경에 적벽의 형승이 보태져 호남 일대에서 제일 가는 명승임을 말하고, 그 절경에 마음이 빼앗겨 돌아갈 줄 모르겠다고 노래했다.

다음은 부안군의 적벽강 모습이다. 흐르는 江이 아닌 바닷가 절벽에 江이라는 명칭을 붙여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 데서 적벽에 대한 동경이 얼마나 컸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야트막한 산과 들판이 조화를 이룬 시골의 車道를 굽이굽이 달려 부안군의 어느 마을에 이르면 조그만 안내판이 나타나는데 안내에 따라 승용차 한 대가 들어갈 만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망망대해가 시야에 들어온다. 차를 세우고 몇 걸음을 바다 쪽으로 옮기면 병풍처럼 둘러쳐진 웅장한 기암절벽이 눈에 들어온다. 여명이 틀 때나 저녁노을

11) 勿染亭 扁額

12) 勿染亭 扁額

이 질 때면 온통 붉은 색으로 빛이 나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그늘이 지면 시커먼 절벽이 사람의 오만을 꾸짖는 듯 장엄하게 군림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바다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적벽의 연장인 바닷가 바위들이 눈에 들어온다.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 바위들, 바위에 붙은 조개와 해초들, 바위에 부딪히는 잔잔한 파도소리와 물거품이 살을 에는 겨울바람에도 푸근하고 정겹다. 고개를 들어 수평선을 바라

보면 멀리 보이는 어촌의 모습과 먼산의 풍경이 도시에서 찌들었던 마음을 탁 트이게 해 준다. 소동파가 적벽강에서 “浩浩乎如馮虛御風 而不知其所止 飄飄乎如遺世獨立 羽化而登仙”¹³⁾이라고 한 그 기분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다.



[사진6] 扶安 赤壁江



[사진7] 扶安 赤壁江과 西海

이 적벽강을 노래한 작품도 있다. 1920년대에 변산군에 살았던 朴奎陽이라는 선비가 변산군 일대를 여행하면서 쓴 <邊山歌>가 있다. <변산가>는 국문으로 된 長篇 歌辭로서 그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李靑蓮을 찾으랴고 彩石江에 돌아드니
 騎鯨消息 一千年의 江南風月 뿐이로다
 彩石돌 사랑하여 소매속에 주워 넣고
 赤壁江 돌아드니 蘇子瞻 어데 갔나

13) 『古文眞寶』後集 卷之八

오고가는 저 白鷗야 消息이나 물어보자
李靑蓮과 蘇東坡는 唐宋間에 突出하여
글로는 文章이요 벼슬로는 翰林이라
이러한 名望으로 滄海一粟 되었으니
우리 같은 一介 書生 다시 일러 무엇하랴¹⁴⁾



[사진8] 적벽에서 바라본 西海

변산 지방을 여행하다가 채석강과 적벽강에 들러 그 경치를 보면서 李太白과 蘇東坡를 떠올렸다. 두 시인의 명망을 생각하면서 세월의 무상함과 대자연 앞에서 인간의 왜소함을 서글픈 심정으로 노래하였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적벽은 층암절벽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절경을

14) 『扶安郡誌』第十一篇 「文化和 藝術」, 이우출판사, 1957년. 897쪽

이루는 곳이다. 옛날의 문인·예술가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후세에 남겼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세의 동아시아는 한자·한문문화권으로서 보편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 문화권 내의 위대한 학자, 문인, 예술가들을 흠모하고 그 遺風을 따르려 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국 예술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형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赤壁도 그러한 문화를 형성한 所以然이 되었다. 여기서는 그러한 문화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한 결과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서 그쳤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추후에 진행될 韓中 景觀文化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기초자료 현황을 소개하고 제시하는 데 의미를 둔다. 그리고 자연경관 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현대사회가 치르고 있는 도시화와 첨단과학화의 폐해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러한 작업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도시 속에서도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예술, Design의 창조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이다.

❖ 참고 문헌

- 황건 저, 최인옥 역, 『古文眞寶』, 을유문화사, 1984. 200쪽 참조
 扶安향교, 『扶安郡誌』, 이우출판사, 1957년
 김학주, 『중국문학개론』, 신아사, 1993년
 大韓民國 藝術院, 『韓國美術事典』, 1985년
 朴瑛子, 「적벽도연구」, 『實學思想研究』, 역사실학회, 第5-6輯, 1995. 1
 崔卿賢, 「명대 오파의 적벽부도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研究』, 한국미술사학회, 第199-200號, 1993. 12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intings & the Landscapes of
‘The Red Cliff’ in China and Korea

Jaehyun Kim

This paper is to survey a series for The Red Cliff which is depicted The Former and Latter Odes on the Red Cliff written by Su Shi. This subject was mainly painted by the literati painters and consistently represented.

In format of The Red Cliff, there are basically a types of pictorial depic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contents. Describing the whole scenes and the part of the story. Others is painted which bring from one scene of describing the whole scenes of the story.

Key Words

한중, 적벽, 경관, 이미지, 문화

Sino-Korean, The Red Cliff, Landscapes, Paintings, culture

논문접수일: 2010. 2. 20.

심사완료일: 2010. 4. 10.

게재확정일: 2010. 4. 15.